

4월의 기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4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DCEM 성회안내

5월 6일 일본 동경 히비야공회관에서 "2014 동경 지저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성인, 김정환, 김포순복음교회, 나인규, 순복음정릉교회, 신한림, 안희순, 오주봉, 오현주, 이규현, 이형춘, 임철규, 원소신, 정경자, 정낙숙, 조종숙 목사, 최영길 목사, 최인철, 한태성, 한선희, 함석숙, Esther Han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협회에서 재활 프로그램 중에 언어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말로써 알코올 중독을 치료했는데 약물이나 운동치료보다 더 높은 50%의 치료 확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언어 치료는 매일 아침마다 12단계의 말을 알코올 중독자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2단계는 "우리 스스로는 어찌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3단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또 6단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7단계는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합니다"라고 하고, 11단계에서는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12단계에는 "이것은 효과가 있고, 나는 이대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나 특별한 주사를 놓는 것보다도 50% 이상의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 효과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곧 능력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써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차원은 감각과 이성으로 사는 차원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과 소원하고 희망하며 꿈을 갖는 방법,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는 방법, 입술로 고백하는 방법들을 항상 훈련해야 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pril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동부연합 부흥대성회 개최



대만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타이퉁에 4월 3일 역사적인 개신교 집회가 개최됐다. 타이퉁교역자연합회가 주최하고 DCEM 주관, 가오슝 화롄 타이난 교역자연합회가 후원한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동부연합 부흥대성회와 교역자세미나가 4월 3~4일 타이퉁실내 체육관과 타이퉁현예술문화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타이퉁성회 고문으로 성회를 준비한 정빠런 목사(가오슝 우창교회)는 "조용기 목사 초청 성회가 타이퉁을 영적 도시로 거듭나게하고, 대만 남부와 동부, 남동부의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성회가 시작하기 3시간 전, 성회장으로 들어가려는 성도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타이퉁에서 온 성도들은 이번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17시간을 운전해서 왔다고 전했다. 성회가 개최되자 체육관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다.

장마오슝 목사(타이페이 신피엔싱타오교회)와 왕리웨이 목사(타이퉁 목회자연합회 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참석자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번 성회에는

성산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한복을 입고 등장해 현대음악에 맞춘 부채춤을 선보였다. 현지인들은 신기한 듯 자신의 카메라에 담아냈다.

대회장 장신이 목사가 강사 조용기 목사를 소개했다. 김경숙 선교사가 통역을 맡았다. 장 대회장은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적 세계는 진짜다. 기적을 가져온다. 2006년에 우리 생명천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2007년부터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4차원의 영성을 적용해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자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선포했다. 모두들 꿈같은 소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며 기도응답의 감격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열두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생수를 마시는 것 같고 생기가 들어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루증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겠다는 아름다운 꿈을 꾸며 '병을 고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고백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그녀에게 기적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대만 청중들에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만나자"고 당부했다. 또 조용기 목사가 "최근 대만에 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고 있다"고 말하자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설교 후 조용기 목사는 신유기도를 한 후 기적을 선포했다.

대만은 현재 2200만여 명이 살고 있다. 그중 90%이상이 불교 도교 유교가 혼합된 독특한 중국불교를 신봉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개신교 비율은 3%다. 하지만 타이퉁은 남부의 가오슝, 타이난, 핑둥과 동부인 화롄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인구 25만명의 도시로 개신교 비율은 6%이다. 이번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동부연합 부흥대성회는 대만 동부와 남부에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마련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마음 다스리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니라... (중략)...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28~39절>

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이나 계산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에서 승리하고 벗어날 기적도 같이 올 것이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기적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따릅니다. 믿고 기다리며 주님을 앙망하면 기적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일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끊으려고 해도 우리를 그 사랑의 끈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억세게 사랑하시고 그 엄청난 끈으로 묶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고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1.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이나 희노애락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 어찌하든지 악한 마음이나 죄에 끌려가는 마음을 품거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계산을 먼저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다가오면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맡기고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지 않으면 옆에서 구경만 하시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은 철저히 책임지고 맡아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네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2.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아서 지나갈 수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한 이유가 있습

3. 믿음의 말로 기적을 체험하라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기적을 발생시키는 믿음을 항상 소유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로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꿈 그리고 믿음,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4차원의 영성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말을 통해 생각과 믿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아름다운 꿈을 지키는 것도 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었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스스로의 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운명으로 사로잡히고, 반대로 좋은 말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좋고 긍정적인 운명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말에는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

써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퍼스트레이디들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여성'으로 손꼽히는 사람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그녀는 항상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10살 때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돼 여기저기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의 귀한 자산을 소유했는데 고아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행동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꿈을 꾸고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결혼하여 슬하에 6명의 아이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영부인의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런 위로의 말들에 “아니요. 아직까지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섯 자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말과 행동이지요?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꿈을 꾸게 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힘을 얻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천국의 문을 여는 말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말을 통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이 큰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믿음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교역자세미나

목회자들에게 4차원 영성 비밀 전해 타이통현예술문화회관 성령축제의 한마당



타이통교역자연합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조용기 목사 초청 교역자세미나가 4월 4일 타이통현예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 모인 목회자들에게 4차원의 영성의 비밀에 대해 전했다. 통역은 장한업 목사(타이페이 순복음교회)가 맡았다. 설교에 앞서 정빠린 목사가 축사하며 조용기 목사의 방문에 감사를 전했다.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연예인선교

회 이호영 권사의 한국무용팀이 장구를 들고 민속 춤을 선보였다. 장구소리가 강해 질수록 참석한 대만 목회자들의 박수갈채가 강하게 이어졌다. 대만 교역자연합회 총회장 장리로 목사의 대표기도, 테넨쑤웨이 목사가 '갈보리 십자가'라는 찬양을 색소폰으로 연주했다. 목회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한 조용기 목사는 “여러분의 힘을 다 합치면 대만을 부흥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며 성령님이 운행하는 4차원 영성의 비밀을 주제

로 강연했다. 조용기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오는 이유는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기 때문”이라며 “여러분들도 영적인 밥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목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한 조용기 목사는 “성령은 생수와도 생기와도 생명의 떡과도 같다. '병고침 받았다. 축복 받았다. 승리했다'고 믿고 말하면 4차원인 성령님이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말했다. 또 조용기 목사는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모인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꽂 들어차 있어야 한다.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한다. 기적을 믿어야 한다.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powerful)한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장신이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게 타이통 전통의상을 선물했다. 조용기 목사는 타이통 전통의상을 입고 목회자들과 함께 춤추며 주를 찬양했다. 조용기 목사가 퇴장한 후에도 목회자들은 성회장소에 남아 계속 찬양을 불렀다. 이날 타이통현예술문화회관은 성령축제의 한마당이였다.

조용기 목사 '아세아목회자초청...' 만찬 참석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2월 28일 63빌딩에서 열린 제12회 아세아목회자초청세미나 만찬에 참석해 방한한 세계 중화권 목회자 및 리더 540여 명을 격려했다. 조용기 목사는 영산수련원에서의 세미나 일정을 마치고 만찬에 참석한 중화권 목회자 및 리더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용기 목사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마음에 그리던 것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긍정적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의 소원은 이뤄질 것이다”라며 교회 성장뿐 아니라 개인의 희망을 위해 믿음을 갖고 선포하자고 말했다.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동북아선교회(회장 최병구 장로) 주관으로 진행된 아세아목회자초청세미나에 참석했던 중화권 목회자 및 리더들은 3월 2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린 주일 2.4부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